



Come to HUFS Meet the World!

素昂 조용은과

民世 안재홍의 사상적 접점

中道의 노정 위에 통일국가를 꿈꾼 지성들



1. 소개

- 조소昂(素昂 趙鏞殷, 1887~1958)
 - ▶ 독립운동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한 사상가, 외교관
 - ▶ 대한민국 헌법의 숨겨진 아버지
 - ▶ 1902년 성균관 입학
 - ▶ 1904년 황실특파 관비유학생 1기로 도쿄 부립제일중학교 유학
 - ▶ 교장 가즈우라 토모오의 민족차별적 발언에 동맹파업과 퇴학 후 1908년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 전공
 - ▶ 1912년 대학졸업 후 귀국, 경신학교 양정학교 교사
 - ▶ 1913년 중국 망명, 박은식 신채호 신규식 등과 동제사 가입, 박달학교 교사

1.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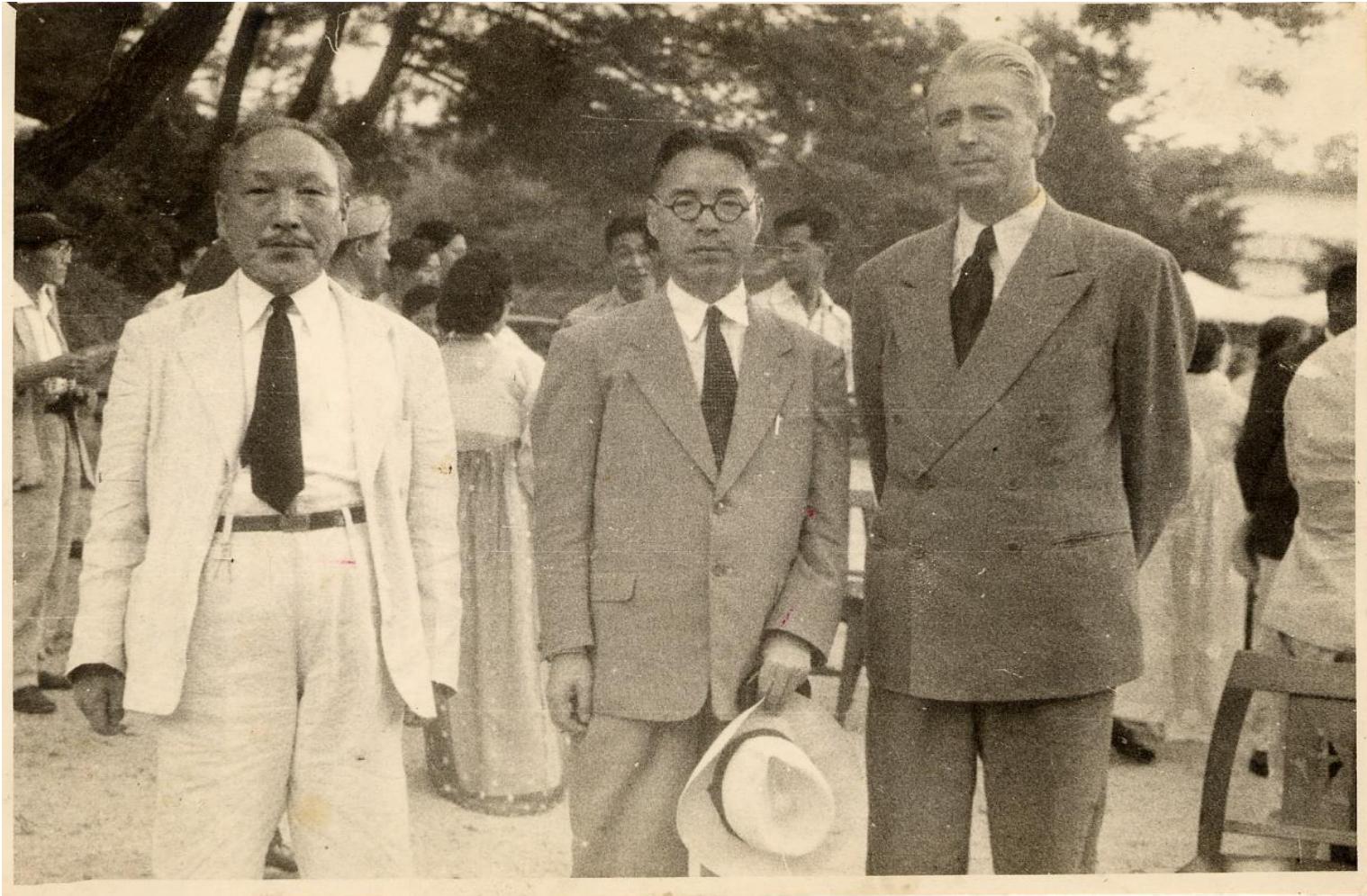
- 안재홍(民世 安在鴻, 1891~1965)

- ▶ 언론인, 역사저술가, 정치가
- ▶ 1911년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 입학, 1914년 졸업 후 귀국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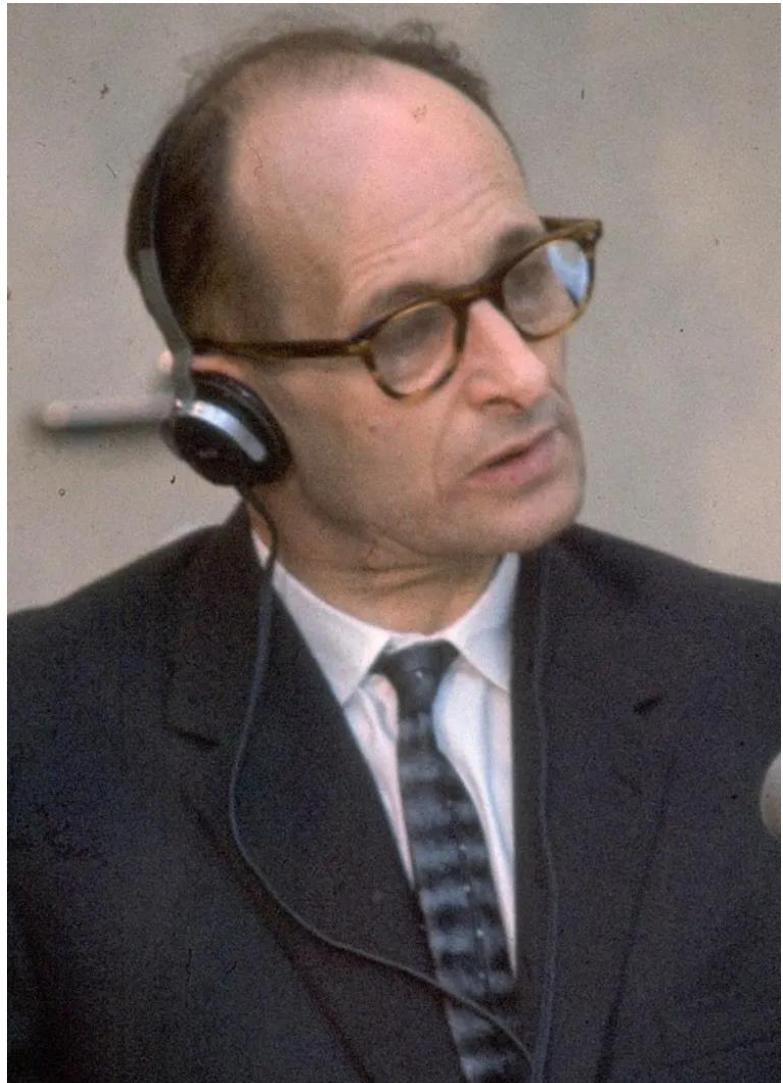
1915년 중앙학교 학감으로 활동

- ▶ 1913년 중국여행 과정에서 동제사 가입
- ▶ 조선어학회 사건 등 식민지 시기 총 9회의 옥고
- ▶ 송진우, 여운형과 함께 일제에 시종일관 비타협의 노선을 견지한 민족주의자
- ▶ 건준 부위원장, 국민당 당수, 민정장관, 2대 의원
- ▶ 1950년 9월 26일 조소앙 등과 함께 납북되어 1965년 3월 1일 평양에서 사망

조소앙, 안재홍, 웨드マイ어 특사 1947 창



2. 정치 지성(知性)의 개념



- 아렌트(H. Arendt)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정치적 惡의 실행은 사악한 동기가 아니라 '생각없음' '무사유'에 있다는 사실을 아이히만의 상투성(cliché)에서 발견
→ '생각하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특정 환경에서 惡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2. 정치 지성(知性)의 개념



- 『인간의 조건』에서
→ 인간은 주어진 세계 속에
서
 삶을 영위하고 사멸성의
 실존조건을 지닌 존재
→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끊임
 없이 '생각'을 해야 하는
 '정치적 동물'로의 특성
→ 자신의 존재론적 위상을
 자각하는 순간, 인간은 세
 계
 와의 조응과정에서 비판
 적
 사유의 기능을 수행하게

2. 정치 지성(知性)의 개념

- 인간의 삶=인간다운 삶=정치적 삶
- 정치적 삶=정신의 삶(Life of Mind)+활동의 삶(Life of Action)
- 정치 지성=정신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실천의 원동력으로 비극적 현실에 저항했던 비판적 행위자
 - 생각하는 삶을 자신의 책무로 규정
 - 삶의 파괴로부터 저항하고 다시 대중을 자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들의 책무를 각성시키고 실천을 유도하는 행위자
 - 지식인, 정치 리더라고 명명하기보다 스스로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각성에 따라 정신의 삶을 출발하고 이를 책무로 이행하는 실천으로 옮기는 활동의 삶과 정합할 때, 비로소 公

2. 정치 지성(知性)의 개념

- 조소앙과 안재홍을 정치 지성의 개념으로 조망할 경우,
 - ① 일본 유학시기가 중첩되고 모두 1911 신해혁명에 자극 받았으며 훗날 중국에서 동제사에 가입했다는 공통점
 - ② 조소앙은 해외에서, 안재홍은 국내에서 文筆을 수단으로 항일 투쟁의 노정을 걸었다는 공통점
 - ③ 해방 이후 통일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균등사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에 매진한 이론가, 정치가라는 공통점
 - ④ 조소앙은 남북협상, 안재홍은 좌우합작이라는 중도노선을 선택함으로써 보수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서 배척 당한 경계선 위에 놓인 존재라는 공통점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87년 체제(6공화국)의 헌법 전문에 헌법 정신이 명시되어 있음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 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 조소앙, 헌법의 아버지

- 제헌헌법의 이념성과 전문에 수록된 권리와 책무의 균등, 세계 평화의 이념은 독립운동사 속에 형성된 건국규준이었음
⇒ «대동단결선언»(1917)-«대한민국임시헌장»(1919)-
«대한민국건국강령»(1941)로 이어지는 조소앙의 건국 구상
과 헌법 정신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임
⇒ 1912년 5월 20일(음) 동제사(同濟社: 同舟共濟, 한 마음 한 뜻으
로
같은 배를 타고 피안에 도착하자) 결성
⇒ 예관(睨觀) 신규식의 주도 하에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문일평,
김규식, 박찬익, 조성환, 윤보선, 장건상, 여운형, 조동호, 홍명
희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대동단결선언»(1917) – 保皇主義의 공식적 종언

→ 박은식, 신채호, 박용만, 윤세복, 조소양, 신석우, 한진교 등 14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 조소양이 선언서 작성

→ 조소양의 정신의 삶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계기
→ 전통적 유가개념으로서 대동(大同)의 의미를 근대정치이념으로 재해석

→ 국민 개개인의 단합을 통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대동다결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대동단결선언»(1917)

“융희 황제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오인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날

한 순간도 숨을 멈춘 적이 없음

구한국 최종일은 신한국 최초의 일일(一日)

경술년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
시적 선위”

→ 대한제국의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양도된 것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대동단결선언»(1917)

“오인의 단결이 하루가 빠르면 신한의 부활은 하루가 빠르다”

- 대동은 바로 신한국 건설을 위한 총 단결로 규정
- 조소양의 정치신념 / 정치활동의 목표는 애초부터 대동단결
- 동제사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자 그룹을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여 모두 독립운동으로 단합

- 민주공화정체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나가는 혁명서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 1919년 시점에 이르러 시점에서 대동=단결의 의미에서 대동=和協=共進의 의미로 전환(<<대한독립선언서>>)
 - 공진하여 강권속박을 해탈하고 대동건설을 협찬할 필요로 인해
 - 속박으로부터 해탈은 평화와 독립의 회복하는 것
 - '독립은 天人合應의 純粹 動機/民族自保의 정당한 권리 행사'
 - 평화독립을 진정한 도의(정의)의 실현이라는 도덕적 가치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 대동=和協=共進의 의미 전환

“일절방편으로 軍國專制를 소제하며 民族平等을 全球에 普施
할지니 此는 我 獨立의 第一義오, 무력겸병을 근절하여
平均天下의 公道로 진행할지니 此는 我 獨立의 本領이요,
밀약사전을 엄금하고 대동평화를 선전할지니 차는 아 복국의 사
명”

→ 군국전제에서 민족평등으로, 무력겸병에서 평균천하로, 밀약에
서

대동평화로의 지향

→ 일제의 폭압에 대응으로서 주권재민에 기초한 권력의 창출

3. 조소앙,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 일제의 폭력에 권력으로의 대응은 전쟁을 통한 독립이 아니라 평화를 통한 독립이 가능하다는 성찰로 전개
- 1919년 3.1운동이 국민주권의 행사임을 분명히 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출발을 알린 것은 1919년 4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임시헌장」(조소앙이 기초)
 - 0조의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써”
 -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 대동=민주공화=균등이라는 의미로의 확장을 헌법체계로 명문화
2조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함
3조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는 일체 평등함
4조 인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신체의 자유를 향유함
5조 인민은 공민 자격을 가진 자로 피선거권을 소유함
6조 인민은 교육 납세 병역의 의무를 소유함
7조 대한민국은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
에 가입함

3. 조소양, 헌법의 아버지

- 대동단결로 민주공화주의 혁명까지

2조는 입법부가 최고권력이라는 의회주의의 표명

3조-6조는 자연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

→ 이후 한국독립당의 당강에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추구

하는 삼균주의 사상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게 됨

7조는 건설된 국민국가는 폐쇄적인 자국 중심주의 민족
주의

가 아니라 세계평화와 문화의 보급에 개방된 세계주
의를

4. 사상적 접점으로서 삼균주의



조소앙의 삼균

- 1930년 『한국독립당』주의, 정강을 기초하면서 삼균의 단서를 제시
- “독립당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생활을 주의로 삼는다.**”
- **사람과 사람의 균등이란 '정치균등화, 경제균등화, 교육균등화'를 지칭**

안재홍의 삼균

- 1945년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출간
→ 다사리 이념에 기초한 통일 국민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
→ 다사리는 고유한 우리말에서 파생한 정치철학의 개념
→ 다 사는, 다 살리는 이라는 의미
→ 萬民共生, 大衆偕樂의 다사리 국가를 목표로 한 국민국가는 우주-자연-개인으로 환원되는 민주성의 원리를 계승하고 개인과

4. 사상적 접점으로서 삼균주의

조소앙의 삼균

-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건국정신으로 삼균을 제시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 사회 각층 각 계급의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향유를 均平하게 하며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하라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 하자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

안재홍의 삼균

- 다사리=조선 민족사와 함께 출발한 운영원리
→ 고유한 정치적 특질로서 다사리 곧 민주주의
→ ‘나’는 ‘나라’ ‘겨레’로 자연히 확장하는 것이 다사리(다 사는)

“하나의 통일민주국가가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대중생활의 전부면에 뻗치어 고유한 그러나 생신한 민주주의에 말미암아 自我國家를 그의 신민족주의의 대도에서 정진 매진케 하는

4. 사상적 접점으로서 삼균주의



조소양의 삼균

- «대한민국건국강령»의 <총강>은 건국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

“신국가 형식의 초석으로서 대한민국은 혁명적 삼균제도로써 復國과 建國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공리로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3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 國體, 政體, 正體性을 규정함

안재홍의 삼균

- 다사리=신민주주의=신민족주의=삼균주의로 귀결(이념에서 실천으로)

▶ 신민주주의=신민족주의의 독자성

→ 손문의 민족주의-민권주의-민생

주의의 삼민주의와 차별성 비교

→ 특정 역사단계에서 요구되는 윤리관으로의 한계

→ 종적이고 시간적 후속성을 지닌

역사적 종합회통이 산물

4. 사상적 접점으로서 삼균주의

조소앙의 삼균

- 1945년 해방과 한국독립당 5차 임시대표대회에서 선언서
- 조소앙의 삼균주의 총정리
1조 국가의 독립보위와 민족문화 발양
2조 계획경제제도 확립과 균등사회
3조 전민정치기구 건립과 민주공화
4조 국비교육시설 완비와 기본지

안재홍의 삼균

- 다사리=신민족주의=신민주주의=삼균주의의 등식은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등 정치평등과 경제균등의 양자를 횡적이고 또 공간적으로 병행쌍시(竝行雙施)하되 다시 교화의 균등 즉 智力의 평등으로써 그에 배합”한 것으로 입론(立論) 자체가 삼민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결론

4. 사상적 접점으로서 삼균주의

조소양의 삼균

- 내외의 일원적 해결기제로서 삼균주의를 제시하고 있음
 - ① 균등사회 실현은 경제적 균등
 - ② 민주공화정 실현은 정치적 균등
 - ③ 기본지식과 필수기능 실현은 교육적 균등으로
 - ④ 독립된 국가 간 균등한 국제관계

안재홍의 삼균

“삼균주의를 그 내용으로 삼는 신민주주의는 실제로 균등사회·공영국가를 완성하여 富·權·智를 專有, 독천(獨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 해방과 독립의 완성을 위한 국민국가 건설의 실천기제로서 신민주주의, 정치교의로서 신민족주의의 구체적 지표=삼균주의를 강조

4. 사상적 접점으로서 삼균주의

- 조소앙의 '삼균'은 대한민국 헌법초안에 직간접적으로 투영
⇒ 조소앙에 대한 기존 평가는 무의미함을 지적할 수 있는 단서
 - 삼균은 단순히 정의와 평등 실현의 정책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
 - 삼균은 조소앙의 신념의 표상이자 건국의 원리로 채택
 -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원칙은 건설될 신한국을 한민족 전체의 소유로 규정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로 설정하려는 것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 1945~1948 해방정국의 과제
 - ▶ 목표는 통일된 민족국가(국민국가)=신국가=新韓의 건설
 - ▶ 내부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실현=신정부=신국민의 완성
 - ▶ 외부적으로 국제적 역학에 따른 남북분단의 극복
- 급선무는 내부의 좌우합작과 외부의 남북통합이라는 과제를 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이념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설정하는 것
→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 민족국가 건설에서

삼균주의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 신국가는 신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한 민족국가
- 신민족주의 민족국가의 토대로서 신민주주의 사회
- 신민주주의 이념을 사회혁명의 기제로 채택할 것

Q. 왜 신민주주의의 채택이 사회혁명을 가능하게 하는가?

A.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는 동일예속의 상태로 계급의 소멸을 가져옴 → 해방은 동일예속의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

→

동일해방의 상태 (초계급적 상태에서 국민으로의 재탄생)

☞ 大衆共生, 萬民皆勞의 민주적 사회 실현의 토대가 마련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 신민주주의=삼균주의

“삼균정책의 토대 위에 만민공화, 대중공생의 신사회 국가의 건설”

“富—權—智 셋은 인생생활의 기본조건”

“따라서 신민주주의는 편재 독단됨이 없도록 골고루 분배 소유

되는 균등사회 공영국가를 만드는 것”

☞ 신민족주의 국가의 신민주주의 사회 실현의 구체적 방법은

삼균주의에 입각한 정책의 실행이 역사적 당위적 요청사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 안재홍의 삼균주의는 전통적 정신의 삶과 근대적 정신의 삶을 혼용하려는 성찰의 산물

- 전통적 정치관에서 경제적 균등의 강조

“恒產이 없으면서도 恒心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이 할 수 있다. 만약 백성이 항산이 없으면 이로 인해 항심도 없어진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음이 없을 뿐” (『孟子』「梁惠王上」, 7,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 민중의 정부 의존은 정부의 관권 만능의 독선을 가져올 위험성
 - 이러한 민중-정부 모두 비민주적이며 시정되어야 함
- 즉, 국민개로, 대중공생 /내 일은 내 힘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살자!
 -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국민으로의 재탄생이라는 질적 전환은 생계와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파악
 - 삼균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최소한 이익보장을 어떻게 할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① 경제적 平權으로서 토지개혁

▶ 토지의 국유 원칙을 전제로 인구비례에 따른 분배의 형평성

→ 토지의 80%가 일본인의 공–사유 재산이었기 때문 회수대상

▶ 무상분배가 아니라 최저리로 장기상환

▶ 농민의 세습소유는 허용하지만 자유처분을 금지

→ 사적 소유 및 유상상환이라는 점에서 공산주의식 무상몰수

내지 국유화 정책과는 구별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② 정치적 平權으로서 의회주의

“현대적인 경제균등의 토대 위에 건설되는 초계급적 만민공생의 민주주의는 만민공화의 균등사회를 이상으로 하는 바”

- ▶ 제가평정, 군공회의, 화백회의 등 고대 '다사리'에서 비롯
- ▶ 만인의 정치참여는 빈부, 성별, 직업의 차별 없는 국민총체
- ▶ 신국민으로의 정치적 재탄생이라는 질적 전환을 지향
- ▶ 의회주의는 신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신국민의 전민족적 협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만민총언, 대중공생의 신민족주의 이념
에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② 정치적 平權으로서 의회주의

▶ 봉건귀족, 대지주, 대자본가들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국가기구를 만들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미명 하에 압박 착취

→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는 개별성과 보편성을 아우름

→ 전위조직으로서 대중조직으로서 정당의 결성 필요성

→ 소선거구제, 20세 이상의 남녀 참정권, 지역별직장별 대의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통한 정치적 훈련 강조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③ 문화적 平權으로서 문화대국의 꿈

▶ 경제적, 정치적 평권의 토대 위에 최종 이상상으로 제시
"정치평등과 경제균등의 양자를 횡적, 공간적 竝行雙施하
면서

교화의 평등이라는 지력의 평등으로 배합하는 것이 삼균주
의"

▶ 삼균주의의 함의는 정치적, 경제적 평권과 등가로 책무의
평등

과 봉사의 평등을 정합하는 것

→ 권리의 평등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만민개로와 협동호애라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③ 문화적 平權으로서 문화대국의 꿈

▶ 경제적, 정치적 평권의 토대 위에 최종 이상상으로 제시
"정치평등과 경제균등의 양자를 횡적, 공간적 竝行雙施하
면서

교화의 평등이라는 지력의 평등으로 배합하는 것이 삼균주
의"

▶ 삼균주의의 함의는 정치적, 경제적 평권과 등가로 책무의
평등

과 봉사의 평등을 정합하는 것

→ 권리의 평등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萬民皆勞와 協同互愛라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Q. 왜 정치적, 경제적 균등을 이룬 후 문화적 균등이 필요한 걸까?

민주주의 사회가 곧 삼균주의 사회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A. “사람은 경우(境遇)의 동물이라, 그 환경에 의존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훈련은, 모든 정치시설의 힘과 아울러 어떠한 인민의 생태와 및 문화적 동향을 크게 바꿀 수 있나니 이것은 진리”

→ 인간의 삶의 완성으로서 정치적 삶의 실현을 넘어서서 문화적

완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의미

5. 안재홍의 삼균주의가 갖는 차별성

Q. 왜 문화적 평권에 따른 문화대국의 추구가 최종형태인가?

A. “일본 제국주의의 강맹한 침략 밑에 다시 비(非)조선적인 요소가 증강되어 조선의 민족문화는 거의 질식상태에 빠졌었고 따라서 반신불수적인 병적(病的) 문화의 범주 속에 구속되어 있다” 판단

▶ 민족문화의 순화 양양과 아울러 국민적 또는 민족적 긍지와

적극생활의 정신적 추진력의 고동감발(鼓動感發)을 도모할 것

▶ 「나라」의 어의에서처럼, ... □ 나□ 인 개성이 윤리적 기본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 빛과 그림자

- 안재홍은 1945년 8월 15일 직후부터 여운형의 건준에 참여
 - 건준 탈퇴와 상해 임시정부 영립을 지지
 - 신국가 건설을 위한 좌우 협동의 과제를 추진
 - 1947년 2월 5일 민정장관 취임
- 1948년 대한민국정부수립은 합법적 선거에 따른 정통성을 확보

하는데 성공하지만,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로부터

한민당, 한독당, 민독당 등 야당이 배제됨으로써 정치적 다원성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 빛과 그림자

- 한민당-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내각에 대한 시시비비를 공언한

야당으로의 정체성 변화

→ 이승만, 신익희, 한민당의 단독정부수립 과정 협력동반
→ 1949년 한민당의 김성수 + 신익희 = 민주국민당 창당
과

반이승만 투쟁 합류(신익희의 민국당은 민주당 구파로)

- 대한독립촉성국민회(獨促) 韓獨派 – 신정부와 협동 / 반공산주의적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목표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 빛과 그림자



- 민독당 民聯派 –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의 총결집을 목표로
 안재홍, 박일래, 박용희 등의 민독당 탈당파
 - ▶ 당시 정치영역에서는 4개의 흐름이 존재
 - 이청천, 명제세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운동
 - 신익희, 배은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국민당
 - 신석우를 중심으로 하는 공당창당
 - 조소앙, 안재홍을 중심으로 하는 신당창당
 - ▶ 조소앙과 안재홍은 삼균주의라는 공통분모에 기초한 신당수립

고자 을 저개한 것으로 저만되었지마 날으 기대를 받으



6. 대한민국정부수립의 빛과 그림자

- 조소앙, 명제세, 안재홍, 이청천, 박용희, 신익희 등 6인의 신당 준비공작 중 신익희가 대한국민당을 창당하면서 이탈
- 1948년 9월 27일 조소앙, 명제세, 안재홍, 박용희, 이청천이 신당조직에 착수하기로 합의
 - ▶ 결과적으로 실패
 - 한독당을 탈당한 조소앙의 정치적 활동영역의 축소 우려
 - 안재홍은 신당창당에서 사회운동으로 선회
 - "6인이 회합하여 진보적 민족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진영의 대동단결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인데 지금의 신당공작을 볼 때에는 그 목적에서 이탈 된 것 같다. 그럴 바에는 민독당에서 탈당한지 얼마 되지 않는 나로서는 그러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이제는 신당공작 을



7. 좌절된 꿈에 대한 우리의 변명

- 남과 북의 경계선적 평가

- ▶ 소양은 한민족 비극의 시기를 헌법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문필혁명가 / 대한민국 헌법의 숨겨진 아버지로 평가받는다
- ▶ 민세는 당대의 政論家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 분단의 현실과 통일 민족국가 완성을 위해 헌신한 큰 선비로 평가받는다
→ 해방공간에서 건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분명한 친화성
→ 사유를 통한 정신의 삶을 출발하고 자신의 책무에 대한 각성을 관조에 머물지 않고 해방과 건국의 노정에 참여하여 정신적,

7. 좌절된 꿈에 대한 우리의 변명



이론적 태도를 마련하고 국민의 양성을 이끌기 위한 활동의
삶으로 전환했던 정치 지성이라는 점

→ 국민국가의 이념적 토대로서 신민족주의 / 시민사회의 이
념적

토대로서 삼균주의를 표방했던 공적 행위자들

→ 미완성이 꿈으로 머문 현실정치에서 실패한 중도적 인물
들

7. 좌절된 꿈에 대한 우리의 변명

- 남과 북의 경계선적 평가

→ 소양과 민세는 이쪽의 활동공간에서는 공산주의의 부역자로 /

저쪽의 활동공간에서는 반혁명, 반공산주의자로 밀려 양쪽

진영으로부터 경계로 축출된 상태

→ 양자의 청사진에서 완성된 대한민국의 가치체계로 포함시킬

‘화해’ ‘통합’ ‘신뢰’ ‘애국’ ‘평화’의 가치들을 재현할 단서를

7. 좌절된 꿈에 대한 우리의 변명

- 남과 북의 경계선적 평가

→ 양자의 운명 역시 후대의 평가라는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후대의 추종자들에게 존숭되는 행운을 얻었던 인물들에
비해

 무수한 지적 천재와 지성들이 공감조차 얻지 못하고 있
 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점

→ 세계주의를 포용한 문화대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 드러나는 예전히 그려내던 이유이 피멸되고 있음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me to HUFS
Meet the World!



감사합니다

CREATIVITY

HUFS
ORLD!

Global HUFS
Graduates a